

교육분야의 회고와 전망

—국악과 30년의 발자취—

李 成 千
(서울대)

<目 次>	
1. 교육과정면에서 본 성장	②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
2.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	③ 사회인식에 미친 영향
①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	3. 끝맺음

이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30년의 발자취에 관한 학술회의이므로 교육부문의 내용도 국악과 30년의 성장과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나누어 개관하려고 한다.

1. 교육과정면에서 본 성장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을 뜻하는 일종의 영양소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첫째 조건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성립에 있으므로 교육의 “무엇을”과악하려는 데 교육과정이 절대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표 1〉은 국악과가 창설된 1959년부터 10년 간격으로 교육과정을 통제로 보인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국악과가 창설된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국음악학은 계속 세분된 학문으로 발전되어야 하겠으나, 초창기 국악과의 전공과목은 서양음악에 비하여 국악과목이 적었던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살림에 성의껏 잔치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할 갖추지 않은 상태의 출발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與小野다가 아난 國小洋大의 문화적 충격에서, 그리고 自國音樂의 육성이라는 교육적 정신에 의해 국악과가 창설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학문적으로 덜 분화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악과를 창설함으로써 학문과 예술을 분화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초창기의 얼마되지 않은 과목이 89년에는 많이 증가하였고 또 국악과 서양음악의 이수비율도 반전되어 국악전공 주체로서의 입장이 확고하여졌을 뿐 아니라 그만큼 한국음악학이 발전된 실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면은 〈표 2〉의 석사과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실히 볼

<표 1> 전공필수·전공선택과목표(학사과정)

(○ 필수, ☆ 선택)

	국 악 과 목				서양 음악 과 목	1959 1969 1979 1989				
	1959	1969	1979	1989		1959	1969	1979	1989	
1	전공실기	○	○	○	○	시창·청음	○	○	○	○
2	부전공(거문고)실기	○	○	○	○	화성법	○	○	○	○
3	연주	○	○	○	○	성악문헌	○			
4	국악개론	○	○	○	○	합창	○	○	○	○
5	국악서강독	○				음악사	○	○	○	○
6	동양음악사	○	○	○	☆	음악감상	○			
7	국악사	○	○	○	○	악식론	○	○		
8	가곡		○	○	☆	음악분석				☆
9	악학체법강독		1965~1967			대위법	○	☆	☆	☆
10	국악합주		○	○	☆	전반화성	○	☆	○	○
11	국악기론		1965~1967		☆	관현악법	○	☆	☆	☆
12	국악반주법			○	○	지휘법	○	☆	☆	☆
13	국악문헌			○	☆	작곡법	○			
14	국악한문강독			○		음악미학	○	☆	☆	☆
15	국악합창		○			레파토리	○			
16	국악분석				○	가창	1965~1967(○)			
17	전통무용론				☆	고등악리		☆		
18	한국아악감상				☆	피아노실기		○	○	○
19	민속악감상				☆	음악문헌		☆		
20	민속예능론				☆	예술개론	1965~1967(☆)			
21	일본음악				☆	개화기음악사				☆
22	중국음악				☆	음악사회학				☆
23	인도음악				☆	음악심리학				☆
24	관현악	○	○	○	○	음악통론	1965~1967(○)			
25	민족음악학개론				☆					

수 있다. 석사과정은 학사과정과는 달리 강의가 아니라 연구를 그 방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찍부터 한국음악학에 관한 세분된 과목이 설정되었고 여기에서 축적된 연구가 학사과정으로 연계되는 자충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언급해야 할 두번째는, 이수학점에 관한 것이다. 1976년 이전의 졸업이수 학점은 160학점이었으나 그 이후는 140학점으로 줄었다. 140학점은 1976년에 시행되었으나 197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었는데, 학점이 줄어든 결과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 할 수 밖에 없지만 국악관계과목을 많이 개설하므로써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도 또한 국악과로서의 입장을 확고히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로, 교직과목 이수에 대한 언급이다. 문교부는 1954년 11월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시행세칙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세칙은 일반대학에 교직과설치를 제도화한 것으로서 음악대

〈표 2〉 개설과목표(석사과정)

	1963	1969	1979	1989
전 공(국 악 실 기)	○	○	○	○
국 악 연 습	○	○		
국 악 사	○	○	○	
음 악 미 학		○	○	
음 악 개 론		○		
민 속 음 악 학		○		민속음악연구
동 양 음 악 사		○	○	
음 악 학 연 구			○	
민 족 음 악 학			○	민족음악학방법론
고 등 화 성 법		○	○	
국 악 이 론	○		○	
한 국 음 악 연 구				○
민족 음악학 방법론				○
동양 음악 문헌 연구				○
동양 음악 사상 연구				○
일본 음악 연구				○
인도 음악 연구				○
중국 음악 연구				○
중동 지역 음악 연구				○
한국 아악 연구				○
음 악 사	○			
특 수 연 구	○			

〈표 3〉 이수학점 비교표

학과목	학 점	160학점	140학점
전 공 이 수 학 점		84학점 이상	63학점 이상
교 양 이 수 학 점		42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교 직 이 수 학 점			20학점 이상

학에도 교직과목을 개설하였다. 교직과목 이수자 중에서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는 교원자격 무시협검정을 거쳐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을 갖게하는 것이다. 당시 교직과목은 교육심리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각과지도법 교육실습 등이었으며 〈표 3〉과 같이 기준학점은 없었던 것 같다.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학사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교육위원회의 준교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국악과는 초창기로부터 음악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였다.

국악과의 교육과정에서 언급해야 할 네번째의 중요한 내용은 이중음악성(Bimusicality) 교육이다. 이중음악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국악과의 창설초기부터 운영되었다는 것은 우

리나라 음악교육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2.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

①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에 국악과가 창설되고, 국악전문교육이 성공하게 되자 다른 대학에서의 국악과 설립을 촉진시켰다. <표 4>에서 보는바 대로 현재 13개 국악과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되고 있으며, 국악과의 설치가 서울대학교에서 배출된 교수요원들의 교육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표 5>에서 보는바 대로 전국 국악과 교수의 $\frac{2}{3}$ 가 넘는 인력이 국악과 30년의 교육에서 확보된 것으로 이 인력이 대학국악과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델로 하여 대학의 여건에 따라 얼마간

<표 4> 전국 각 대학 국악과 현황

1987년 현재

	대 학 (교)	소속단과대학	설 치 년 도	졸업정원	비 고
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59	29	
2	한양대학교	"	1972	30	
3	이화여자대학교	"	1974	"	
4	추계예술학교	음악학부	1974	"	
5	서울예술전문대학		1980	"	
6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1983	"	
7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1983	"	
8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1983	"	
9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1983	"	
10	단국대학교	"	1984	"	
11	진남대학교	"	1984	"	
12	전주우석대학		1985	"	
13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1987(인가)		
계				389	

<표 5> 전임교수 비교표

1988년 현재

대 학	교수수	동문	대 학	교수수	동문	대 학	교수수	동문	대 학	교수수	동문
서울대	5	5	서울예전	2	2	경북대	7	6	청주대	3	2
한양대	4	3	중앙대	4	2	단국대	4	3	계 13	59	45
이화여대	5	4	부산대	6	5	전남대	6	4	동문비		76.3%
추 계	4	3	영남대	5	3	우석대	4	3			

의 과목을 삭제 추가하도록한 교육내용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

부정확한 숫자이지만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현직교사는 약 50여명에 이른다. 전국의 음악교사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실로 보아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교육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와 교육내용은 서양음악양식과 국악양식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양식의 음악을 교육자료로 할 때 두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이중음악성교육을 실시해온 결과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자격을 구비시켰다는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중음악성 교육은 교사로서의 지도적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교육을 질적으로 심도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음악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악과 서양음악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음악을 교육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또한 음악교육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세계지향적 교육안목으로 문화편중지양의 바른 가치관에 의하여 음악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중음악성교육의 이와같은 효과는 <표 6>과 <표 7>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6>은 중학교 교과서의 가창곡을 분석한 것으로(황현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교육내용 분석 연구」) 현행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곡 가창자료가 5년전부터 시행 사용된 교과서의 국악곡보다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표 7>은 국민학교 교과서의 국악곡 가창자료를 통계화한 것으로 검정(2종)인 중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국민학교 교과서는 국정(1종)이다. 1종 교과서는 교육정책 입안에 관계되므로 교과서 편찬 실무자의 이중음악성이 매우 주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국민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자료를 많이 수록하게된 것과 단소를 필수악기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편찬 실무자(황병훈)의 힘도 크다고 하겠으나, 자료를 제작 제공하는 국악계의 노력과 이들 자료를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성숙되었다는 복합적

<표 6> 중학교 가창자료 비교표

양 식 \ 년 도	1984~1988	1989~	증 감 대 비
서 양 노 래	58.9%	55.31%	-3.59%
한 국 노 래	30.5%	31.84%	+1.34%
한 국 민 요	10.3%	11.55%	+1.25%
아 시 아 노 래	0.2%	0.93%	+0.73%
기 타		0.37%	+0.37%
합 계	100%	100%	

〈표 7〉 국민학교 가창 감상자료 비교표

년도 학년 양식	1983년~1988년									
	가 창				감 상				평 균	
	서 양 음 악		국 악		서 양 음 악		국 악		서양음악	국악
1-1	14 곡	% 100		%		%		%	%	%
1-2	15 곡	100							100	0
2-1	18 곡	100							100	0
2-2	17 곡	100								
3	23 곡 참고곡 18곡	100			4 곡	66.7	2 곡	33.3	95.7	4.3
4	19 곡 참고곡 21곡	97.6	1 곡	2.4	7 곡	87.5	1 곡	12.5	96	4
5	19 곡 참고곡 17곡	97.3	1 곡	2.7	5 곡	71.4	2 곡	28.6	93.2	6.8
6	20 곡 참고곡 17곡	97.4	1 곡	2.6	5 곡	71.4	2 곡	28.6	93.3	6.67

년도 학년 양식	1989~										증 감 대 비	
	가 창				감 상				평 균		서양음악	국 악
	서양음악		국 악		서양음악		국 악		서양음악	국 악		
1-1		%		%		%		%	%	%	%	%
1-2	26 곡	92.86	2 곡	7.14	2 곡	50	2 곡	50	87.5	12.5	-12.5	+12.5
2-1	16 곡	72.73	6 곡	27.27	2 곡	50	2 곡	50	69.23	30.77	-30.77	+30.77
2-2												
3	18 곡 12 곡	83.3	3 곡 3 곡	16.7	4 곡	44.4	5 곡	55.6	75.56	24.44	-20.14	+20.14
4	16 곡 24 곡	86.96	5 곡 1 곡	13.04	3 곡	37.5	5 곡	62.5	79.63	20.37	-16.37	+16.37
5	16 곡 20 곡	83.72	5 곡 2 곡	16.28	4 곡	57.14	3 곡	42.86	80	20	-13.2	+13.2
6	17 곡 22 곡	88.64	4 곡 1 곡	11.36	4 곡	57.14	3 곡	42.86	84.31	15.69	-8.99	+9.02

요인이 이를 가능케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사회인식에 미친 영향

우리의 전통음악은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주체적 의식이 높아가고 입식을 새롭게 하는 사

회적 변화가 점증하고 있다. 대학에서 비전공학생들의 국악연주, 국악연주회에서의 청중의 증가, 국악을 애호하는 비전문인들의 국악참여 그리고 국악이 어떤 음악인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등은 인식의 실제적 증거가 된다.

국악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국악을 사회에 확대시킨 것이 국악과 30년의 업적만은 아니겠으나, 국악과가 창설되고 여러 전공의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영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립국악원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한 여러 연주단체는 국악과 30년동안 교육받은 젊은 연주인들에 의해 국악을 사회에 확산시킨 공헌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비전문인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적은 시간과 공간이기는 해도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을 통해 사회인식을 재고시킨 핵심적 인물들이 국악과 30년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직접 관여했거나, 아니면 전통문화인식에 결들여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속에서 작용했거나, 국악과 30년은 국악을 인식시킨 면에서 그리고 국악을 사회로 확대시킨 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3. 끝 맺 음

국악과 창설은 한국문화라는 총체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주요한 에포크이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 필자가 맡은 교육부문 이외에 연구·창작·이론과 같은 국악을 예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은 물론 현대 한국문화형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에포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악과 30년은 완성품이 아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더욱 더 미완성품이다. 교육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이를 설명하고 제시하는 철학에 의하여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설이 국악과 그리고 한국문화에 주도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며, 한편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국악교육이 되기 위해 몇가지 제언으로써 끝맺음을 하려 한다.

첫째, 연주전공에 대하여

현재 기악전공은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의 5종에 한하고 있다. 이 5종의 악기는 전통음악이나 창작음악의 필수적인 악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세악이나 관현악에 편성되는 장고, 양금, 아쟁, 단소(또는 소금) 등은 전공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들 악기가 전공에서 제외되므로써 그 악기에 대한 음악이 쇠퇴될 뿐 아니라 관현악연주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향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 악기는 실기전공자 또는 이론작곡전공자의 부전공악기 아니면 필수악기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수과목을 확정한 후 전공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악전공의 경우 가곡과 판소리로 세분되고 있다. 가곡전공자는 악장 가곡 가사 시조 등을 이수하지만 판소리전공자는 여러 양식의 민속악을 도외시한, 그렇다고 판소리도 섭렵하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불완전한 이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개선과 함께 지도교수의 적극적 교육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각종 편성의 악곡지도와 시나위와 타악기합주 등도 학사과정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작곡전공에 대하여

작곡전공은 화성법과 대위법을 기본작곡법으로 이수하고 국악곡분석과 각종 편성의 악곡을 창작,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작곡은 이론전공과 함께 국악작곡 서양음악작곡의 전공구별은 이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작곡자는 악기가 하나의 음향체로 취급하고 작곡자의 요구에 의해 악기를 선택할 뿐 아니라 작곡어법에 있어서도 베토벤 소나타를 작곡하는 작곡가가 없는한 한국어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작곡전공자는 피아노의 음향으로서 능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바이올린의 소리를 가지고서도 능히 자기표현을 해야 한다. 동서음향을 결합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성법과 대위법이 기능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화성의 소리와 대위법의 성부진행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분석법, 관현악법 지휘법, 등 이중음악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학점감소로 인한 필수과목의 축소로 앞의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작곡전공자는 현재의 필수과목 일부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대신 분석법 등의 관계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작곡전공자는 엄격하고 철저한 작곡수업이 요구되지만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기를수 있도록 필드워크와 작곡발표회(서양음악) 및 연극 무용 등의 예술에 참여하고 많은 식견을 가질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이론전공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대로 국악학이 '학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내지 분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체로 국악사학(Historical musicology)에 집중된 연구나 지도범위를 벗어나 조직적 음악학(Systematic musicology)에 해당되는 많은 분과학과 응용음악학(Applied musicology)의 분야학문도 성립되어 교수해야 한다. 국악과 30년, 아니 그이전부터 연구되어온 이혜구, 장사훈 두분의 연구업적위에 달리 쌓아진 것이 없다면 이것은 이론을 전공한

많은 졸업생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국악과 그리고 그 졸업생들이 명실공히 국악계와 한국음악계를 선도해 간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아픈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악학(한국음악학)이 적어도 30년의 장년이 되었다면 분과학에 대한 논문쯤은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다.

이론전공은 국악에 관한 학문뿐 아니라 세계의 음악을 대상으로 학문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견해가 희망에 그치지 않을때 한국음악학은 세계에 공헌할 것이다.

넷째, 국악전공 전체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연주 작곡 이론전공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학과목과 전공지도 내용) 보강 개편과 이에 따르는 교수요원이 필요하며 학생정원도 대폭 증원되어야 한다.

또한 국악과가 비서구음악의 전공자의 교육기관이라면 국악을 중심으로 하여 비서구음악의 교육도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의 동양음악사와 민족음악학의 개론적 내용 보다 더욱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졸업생들이 해당 국가의 유학하는 것과 함께 연구자 및 학자를 초빙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끝으로, 동양음악연구소를 활성화하여 국악기의 복원 개량과 새로운 악기를 제작하는 연구작업과 학문연구, 석사·박사과정생들과의 공동작업 등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수와 연구원의 활발한 연구의욕과 재정적 후원이 요망된다.

이상으로 국악과 30년을 교육측면에서 회고하고 국악과 한국 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제언하였다.

「교육분야의 회고와 전망」에 대한 논평

李 相 龍

(단국대)

국악과 창설 30주년의 발자취를 교육의 여러 부문에서 더듬어 보고 반성과 제언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좋은 글을 발표해 주신 이성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악과 초창기 음악대학 안에서도 국악을 전공하는 것을 땀땀이 내 놓지 못하고 숨어서 공부하던 일이나, 들고 다니는 국악기를 보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학생들이 요즘은 가야금을 들고 다니는 학생을 보거나 연주를 들을 때 부러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때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국악인 모두가 그동안 쌓은 노력의 댓가가 이닌가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더 많고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학문 연구에 몰두하신 교수님들과 신명을 바쳐 국악을 간직하여온 연주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국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악의 이해가 적고 그릇된 편견으로 이해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를 우리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으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19C말 시작된 학교식 교육은 우리의 음악을 멀리하게 되어 오늘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음악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탓할 것만 아니라 이제 국악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몇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초·중등 음악교육과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표 6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한국 전통음악의 편성 비중이 극히 미미합니다. 더구나 한국전통음악에 서양식 노래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국악은 그 반이 됩니다. 모든 예술이 조기 교육으로 예술성을 기르는 지금 국악도 국민학교, 유치원 시절부터 몸에 익숙하도록 가르쳐져야 합니다.

둘째, 초·중등음악교사들에게 필수적으로 국악 재교육의 기회를 많이 부여함으로써 직접 국악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 국악기 1인 1기 교육을 철저히 하여 누구나 강단에서 국악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악과에 현재 전공으로 채택되지 않은 많은, 악기(단소, 아쟁, 소금, 양금 등)도 전공이나 부전공을 택하게 하여 각 악기의 개발은 물론 사장을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함

니다.

넷째, 각 전공 약기의 4년간의 이수 교육과정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년에 개설된 전공에서는 고등학교 전공실력보다 저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국악과 창설 30주년에 즈음한 현 시점에서 더욱 연구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됩니다.